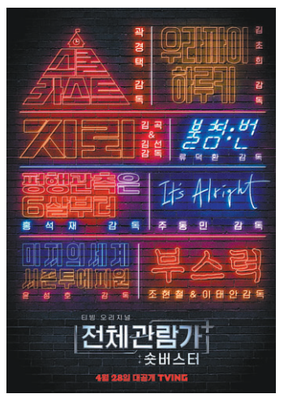
One pick 핫이슈

스타 감독들의 단편영화 제작기 티빙 새 예능 '전체관람가' 뜬다

평행세계 주제로 8인8색 매력…28일 공개



곽경택, 김초희, 윤성호, 주동민 등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주름잡은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8일 티빙으로 공개되는 예능 콘텐츠 '전체관람가+:숏버스터'(전체관람가+)가 이들의 새 무대다.

콘텐츠는 8명(팀)의 감독들이 각자 단편영화를 찍는 과정을 담는다. '친구'의 곽경택, '보이스' 김곡·김선, '소셜포비아' 홍석재, '찬실이는 복도 많지' 김초희, 웨이브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윤성호, SBS '펜트하우스' 주동민 등 감독들이 참여했다. 배우 류덕환과 조현철도 연출자로 나서서 작품을 내놓는다.

이들은 '평행세계'라는 공통 주제를 다양한 장르로 소화해낸다. 톱스타로 채워진 라인업도 볼거리다. 배우 조병규는 곽경택 감독의 '스쿨카스트', 진서연은 김곡·김선 감독의 '지뢰'에 주연으로 참여한다. 신은경, 엄기준, 이지아, 김소연 등 '펜트하우스' 주연들은 주동민 감독의 '잇츠 올라이트'에 출연해 의리를 과시한다.

감독들은 26일 오후 2시 열리는 온라인 제작발표회 무대에 올라 각기 연출한 단편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진행자인 가수 윤종신, 배우 문소리, 방송인 노홍철도 함께 마이크를 잡는다. 콘텐츠를 연출한 안성한 PD는 감독들의 단편영화 제작기를 담기 위해 고군분투한 촬영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한다. 유지혜 기자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영화 '미나리'에 이어 OTT 드라마 '파친코'까지…

한인 이민자 이야기에 푹 빠진 할리우드

"이민은 글로벌 이슈…공감대 얻어"
K콘텐츠 열풍 속 메인소재 급부상
"세계 이민자에 보내는 헌사" 극찬
코미디·로맨스물 등 다양한 변주도


애플 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등 한인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들이 할리우드에서 연이어 제작되고 있다. 사진은 '파친코'에서 주인공 젊은 선자 역의 김민하(왼쪽)와 그의 엄마를 연기한 정인지. 사진제공 | 애플TV+

영화 '미나리'에 이어 애플TV+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 등 한국 이민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한인 디아스포라(본토를 떠나 타지에서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민족집단)가 할리우드의 메인 소재로 급부상했다. 글로벌 이슈인 이민 문제가 케이(K) 콘텐츠의 글로벌 열풍과 어우러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 "이민=보편적 소재"

지난달 25일 첫 공개돼 종영까지 단 한 회를 남겨두고 있는 '파친코'는 '자이니치'(在日·재일 한국인)의 수난사를 그리며 관심을 끌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임에도 세계적 시선을 모은 데에는 이민이라는 이슈가 자리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파친코'의 제작 자문에 참여한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은 "핵심은 이민사회를 다룬 것"이라 강조하며 "이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소재이다. 특히 서양인들에게는 너무나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민이라는 소재를 4대에 걸친 가족사로 풀어가는 '파친코'의 방식에 관심을 보낸다. 미국 CNN은 "대대로 이어지는 과거가 어떻게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인디와이어는 "강렬하게 마음을 뒤흔드는,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라고 평했다. 더 플레이리스트는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보내는 헌사"라고 극찬했다.

타임지는 1980년대 한인가족의 미국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를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뒤 또다시 이민자를 연기한 윤여정의 놀라운 연기에 주목하며 "이민자들의 끈기를 투영한 인물을 완성했다"고 호평했다.

● 다양한 장르로 변주

할리우드는 한국인 이민자 이야기를 코미디와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로도 변주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월트디즈니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훌루는 한국인 미국 입양아가 서울에서 취업한 뒤 자신이 한국 왕족의 후손임을 알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는 드라마 '아메리칸 서울'을 제작한다. 재미 각본가인 라나 조와 '파친코' 제작에 참여한 세바스찬 리 엔터미디어 콘텐츠 대표와 데이비드 김 프로듀서 등이 손을 잡았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로 한국계 미국인 고등학생 라라 진의 로맨스를 그려 눈길을 끈 넷플릭스는 그의 여동생 이야기인 스핀오프 시리즈 '엑스오, 키티'를 만든다. 케이 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무대를 아예 한국으로 옮겨 올로케이션한다. 장거리 연애 중인 남자친구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된 소녀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을 전망이다. 중국계 캐나다 배우 안나 캐스카트가 타이틀롤 키티 역을 맡고, 김윤진·최민영·이상헌, 뮤지컬 배우 마이클 리가 새롭게 합류한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수리수리 마수리"…박해진·지창욱 '마법' 통할까

박해진 새 드라마 MBC '지금부터…'
귀신을 부리는 마술사로 코믹 연기
지창욱, 넷플릭스 '안나라수마나라'
뮤지컬 드라마 마술사역, 내달 공개


배우 박해진(왼쪽)과 지창욱이 MBC 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과 넷플릭스 시리즈 '안나라수마나라'를 무대로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마술사의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사진제공 | MBC·넷플릭스

배우 박해진과 지창욱이 마술사로 변신해 시청자를 찾는다. 각각 MBC 토일드라마 '지금부터, 쇼타임!'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라수마나라'로 독특한 마술의 세계를 선보인다.

박해진은 23일 첫 방송한 '지금부터, 쇼타임!'에서 귀신들을 부리는 마술사로 등장하고 있다. 순경 진기주와 함께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는 내용을 그려간다. 2020년 '꼰대인턴'으로 연기대상을 수상한 그는 "지금까지 출연작 중 가장 즐겁고 솔직하게 연기했으니 시청자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남다른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귀신 캐릭터 정석용, 고규필, 박서연 등과도 코믹 호흡을 맞춘다. 이들과 함께 펼치는 화려한 마술쇼도 드라마의 볼거리로 기대를 모은다. 첫 방송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불화살을 피하는 공연 장면 등이 이미 화제를 모았다.

지창욱이 내세운 무기는 '뮤지컬 드라마'이다. 5월 6일 공개하는 '안나라수마나라'에서 마술사 리을 역을 맡는다. 고단한 일상을 보내는 여고생 최성은이 그의 마술을 믿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다. 박성일 음악감독으로부터 레슨을 받으며 직접 노래를 열창한다. 또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불꽃들이 하늘을 수놓는 등 다채로운 마술 장면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뿜어낼 기세다. 2011년 인기리에 연재된 하일권 작가의 동명 웹툰을 그대로 옮겼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